

농산물 유통 새 패러다임 '꾸러미 사업' 확대

다품종·소량 제철 농산물 도-농 직거래 전남도 연말까지 14곳서 17곳으로 늘려

'시골 밥상' 같은 꾸러미 사업이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도 도농(都農)간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산물 꾸러미 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란 농촌의 다

양한 먹거리를 1~2주 단위로 도시지역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방식이다. 기존 대량생산, 계열화된 생산·유통체계와는 달리 다품종·소량의 제철 농산물을 거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텃밭에서 자란 고추와 상추, 고구마, 늙은 호박, 방사한 닭이 낳은 유정

란, 농가에서 직접 만든 마늘장아찌, 쌀가루 등 제철 농산물이 담긴다. 전남지역에서는 남평농협을 비롯해 나주 언니네 텃밭 등 14곳이 도시 소비자 2200여명에게 꾸러미를 보내고 있다. 연매출은 지난해 기준 12억 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 부녀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 새로운 농의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꾸러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체험 휴양마을 중심으로 수도권 소비 자단체와 연계 확대 등으로 꾸러미 사업을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꾸러미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는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구축,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품목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는 다음달 중으로 꾸러미 사업 운영자와 시·군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여는 등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정부의 농산물 꾸러미

도농교류 지원사업에 순천 한솔영농조합, 담양 두리영농조합 등 2곳이 선정됐다. 이들 조합들은 도시 소비자를 생산 현장에 초청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과정과 농촌 생활 이해, 각종 체험활동 등을 하게 된다. 서은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꾸러미 사업은 대기업, 중간상인을 거치는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도농간 상생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안군-중상숙시 교류 확대 우호방문단 6명 입국 이틀간 무안 관광

무안군은 중국 강소성(江蘇省) 상숙시(常熟市) 인민정부를 대표해 리국상(李國祥)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강소성 상숙시위원회 우호방문단 일행 6명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무안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숙시 인민정부 대표단은 상해에서 직항로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무안군청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전남도청 등 남안신도시를 둘러보고 회산백련지, 무안생태갯벌센터, 초의선사탄생

지 등을 둘러봤다. 이번 교류협력은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무안공항과 직항로가 개설된 상해 인근의 도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해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상숙시와 무안군이 상호 방문을 통해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경제·문화·관광·체육 등 양 도시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목포 섬주민 여객선 운임 50% 할인

시의회 지원조례 의결

목포시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최근 시 관내 섬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돼 운임의 50%를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안군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여객선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국비 50%, 도·군비 50% 지원)혜택을 받아 목포와 형평

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최근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 제정으로 외달도·율도달리도 등 300세대 650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른 목포시의 추가 예산 부담은 연간 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럭무럭 자라라"...섬진강 재첩 살포 광양 주민들은 섬진강에 자생하는 재첩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늘리기 위해 최근 다임면 고사리 마을 앞 섬진강 일대에 재첩 7.2t을 뿌렸다. (광양시 제공)

곡성 짚풀공예 등 6건 전남도 지정문화재 승격

곡성 초고장(草蓑匠·짚풀공예) 등 무형문화재 3종과 강진 고성사 목조 삼불좌상 등 유형문화재 3종이 전남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다. 무형문화재는 보성 옹기장, 광양 전어잡이 소리, 유형문화재는 곡성 서산사 목조 보살좌상, 광양 백운사 목조 여래좌상 등 모두 6건이다. 앞으로 30일간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초고장은 짚과 풀로 전통 생활용구와 농업 도구, 민속신앙 도구 등을 만드는 짚풀공예 기술로 임제지(75) 장

인이 전승해오고 있다. 옹기장(甕器匠)은 전통 저장도구인 옹기를 만드는 기술로 보성 미력옹기 이학수(59) 장인이 전라도의 특징적인 체바퀴 타래기법을 가업으로 전승하고 있다. 광양 전어잡이 소리는 광양만을 중심으로 전승돼온 어로(漁撈) 노동요다. 광양만 사람들이 섬진강 하구와 남해안지역의 생태환경에 깃들여 살면서 펼쳐온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백운사 목조 보살좌상은 1643년 제


작된 작품이다. 불상안에서 한지와 쪽염색을 한 비단에 불상의 조성과정 등을 기록한 2종의 발원문, 묘법연화경 등 부장(腹藏) 유물이 확인됐다. 서산사의 목조 보살좌상은 1706년 제작된 작품으로 조각 기술이 우수해 조선 후기(18세기) 불교조각 양식 이해에 중요한 유물이다. 고성사 목조 삼불좌상은 조선시대에 제작해 1751년 개금(改金)한 작품으로 3구가 원형대로 전하고 조각 양식이 뛰어나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전남도는 이와함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 후기 다불(多佛) 조각 예술의 대표작인 해남 대흥사 천불상(도지정 문화재 제52호)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해남 대흥사 천불전장승(중요민속문화재 제275호),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보물 제1800호)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해 승격된 바 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생물방제연구농정청 유기농자재 연구기관 지정

전남도는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최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생물방제연구원은 앞으로 유기농업자재의 미생물 분석, 약효검사 등 식물시험, 잔류 시험 등을 수행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생물방제연구원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은 전국에서 10번

째며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전남지역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와 인증을 위해 필요한 미생물 분석, 식물 시험, 잔류 시험 등이 가능해 경비 절감과 함께 유기농업 자재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생물방제연구원은 2011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약에 대한 약효와 약해(藥害) 시험, 잔류성 시험분석을 해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 홍도서 불불락 축제

27·28일, 경매·요리경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신안 홍도에서 가을의 별미 '불불락 축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홍도 대표 수산물인 불불락을 소재로 한 이번 축제는 해상퍼레이드, 불불락 요리경연대회, 갑작경매, 낚시체험, 선상체합 등 관광객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험행사들로 펼쳐진다. 가을의 정령사 불불락은 연안에 정착해 갑각류, 작은 어류, 갯지렁이류 등을 섭식하는 어종으로 지역에서는 '열기'라고도 부른다. 홍도는 1965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로 지정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절경이 아름다운 섬 홍도에서 축제기간 동안 불불락의 특별한 요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도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로 2시간 거리며 축제 기간동안 홍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 한해 승선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tsee@



TV 조선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